

도산 시 자동 해지 조항, 만능키 아니다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각종 거래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거래대금 수령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들을 계약서에 삽입하곤 한다. 이때 흔히 포함되는 것이 ‘도산 등의 사유로 채권 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도산해지조항이다.

법원은 도산해지조항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 민법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도산해지 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도외시킨 채 도산해지 조항이 언제나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본다면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하려는, 보호 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 따라서 도산해지조항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해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산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전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산해지 조항을 통해 실질적인 채권 보호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회생절차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해 관리인에게 선택권이 부여된다. 즉,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는 관리인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채권자인 계약 상대방이 도산해지 조항을 근거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 권리자가 회생절차에서 본인 태도와 그 절차에서 부여받은 지위 ▲ 해지권을 행사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 단계 ▲그 권리 행사가 회생절차 및 다른 회생당보권자·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

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회생절차 중 채무자 A를 상대로 리스계약에 따른 도산해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고리스한의료기기의 반환을 청구한 채권자 B에 대해, 대법원은 “B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회생당보권자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고, 채무자 A가 의료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회생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며, 의료기기가 반환될 경우 채무자 A의 회생계획의 정상적인 수행과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지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법원이 도산해지 조항 자체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도산해지조항의 활용을 모색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그 실효성은 도산절차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안 발생 시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것



기지 수집
나 유 리
(금융부)

“인공지능(AI)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기본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10여 년 전 로봇저널리즘을 연구하며 인터뷰를 진행하던 당시, 한 지인이 했던 말이다. 그 무렵만 해도 많은 기자들은 AI가 언론 환경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게 봤다.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당시에는 다소 과장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기술 그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 그리고 그 판단과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

는 점을 비교적 정확히 짚은 말이었다.

최근 금융업에서 강화되고 있는 내부통제 논의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AI 기반 심사와 자동화된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 의사결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은 여전히 제도 안에서 추상적인 상태다.

통제의 필요성은 반복해서 강조되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

AI 활용 역량과 내부통제는 이제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통제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최종 책임자’라는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 필요한 이해 수준과 판단 기준, 점검 절차가 함께 구체화되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한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역시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상당 부분은 금융사의 자율에 기대고 있다. 3중 내부통제 장치와 고위험 AI 승인 절차도 제도적으로는 촘촘해 보이지만, 윤리원칙이 선언에 머물거나 전담 조직이 자문기구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고경영자(CEO) 보고 체계 역시 책임 강화를 의도했지만, 현실에서는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면책 논리로 작동할 여지도 있다.

결국 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AI 내부통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점검하며 책임질 수 있는 관리 역량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통제의 기준과 역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AI는 효율의 도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리스크로 남을 수밖에 없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26일 (음 12월 8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만나고 싶은 사람과 헤어진다. 48년생 가족이 단합해 능률상승. 60년생 칠전팔기의 투지력이 필요하다. 72년생 자녀는 어머니를 존경하면서 도덕을 배운다. 84년생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 어려움은 물러간다.



소

37년생 사업가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뜻대로 이뤄진다. 49년생 누명 쓸 수 있으니 과잉친절 삼가라. 61년생 매출이 늘어나 기쁘다. 73년생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고독하나 자립자득이다. 85년생 계획을 세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호랑이

38년생 운기가 상승하니 백마 타고 길을 달리는 길일이다. 50년생 종일 불조심. 62년생 이익이 따르고 기다리던 소식 온다. 74년생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 86년생 배수가 막히면 건강상실이니 배수 시설 점검토록.



토끼

39년생 타인의 잘못에 조금은 관용을 베풀라. 51년생 끈기 있게 기원하니 소원성취. 63년생 인자한 칭찬을 들어 업무능력이 높아진다. 75년생 귀인이 돕게 되어 매매가 활발. 87년생 등을 돌린 사람 품었더니 새로운 일거리가 온다.



용

40년생 새로운 일과 함께 재운이 꽃핀다. 52년생 남을 비난하려는 마음을 먼저 돌아보도록. 64년생 인기인이 되기 위해서 도전을. 76년생 행운을 사냥하려는 것은 인색한 욕심일 뿐. 88년생 남쪽만 피하고 영업한다면 이득 발생.



뱀

41년생 문서입찰에 서광이 비치니 경사가 겹쳤다. 53년생 집안이 화목하니 모든 일에 만족. 65년생 정면 돌파를 시도하자. 77년생 일은 인생의 권태를 몰아내니 바쁘게 살도록. 89년생 지성이면 귀신도 용감하다 했으니 기도해볼 것.



말

42년생 같은 띠를 다스 경계해야 할 듯. 54년생 디자인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결과가 매우 좋다. 66년생 오전오후 하루 종일 운전조심 하도록. 78년생 오후에 배우자에게 기쁜 소식이 온다. 90년생 어제의 근심이 사라지니 평안을 찾는다.



양

43년생 한군데만 아파도 죽을 것 같으니 건강 신경을. 55년생 오전11시 지나 행운이 찾아온다. 67년생 시험이 길하게 펼쳐져 자신이 있다. 79년생 돼지꿈을 꾸어서 부동산 계획한 소망이 이뤄진다. 91년생 해외에서 반갑게 소식 오는 날.



원숭이

44년생 상대의 짜증을 받아 주면 착각이 이어진다. 56년생 자녀의 승진 공부 책상 방향은 진(辰) 방향으로. 68년생 노력 끝에 큰 결실을 얻는다. 80년생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행운이 있는 날. 92년생 새 햇살 비추니 금전 소식 듣는다.



닭

45년생 오늘 만난 호랑이따위는 신중히 거래. 57년생 티끌 모아 태산만큼 노력도 중요하다. 69년생 가만히 누워있는데 감 떨어지는 행운이. 81년생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93년생 실패의 원인을 다시 진단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개

46년생 손재가 발생하지만 내 탓이니 누굴 탓하랴. 58년생 문제의 본질을 두고 흥분하지 마라. 70년생 축하의 꽃다발을 가는 날. 82년생 정성껏 기도하면 오늘의 어려움이 희석된다. 94년생 화목하게 지내다 보면 다시 길이 열린다.



돼지

47년생 문서매매로 목돈 들어와도 소문내지 말 것. 59년생 먼 곳에서 반가운 소식. 71년생 음주운전 삼가고 퇴근 후 바로 귀가. 83년생 알프스를 넘어 모스크바를 가는 것은 정신의 힘에서. 95년생 친구이혼에 공연하 동조하지 말 것이다.



김상회의四季

토정비결과 신수

친근하게 사랑받아온 전통적인 점복서占福書로 토정비결(土亭秘訣)이 있다. 조선시대 중기 때 학자로 포천 현감과 아산현감 등 나라의 관료 생활을 한 토정 이지함이 썼다고 알려졌지만, 학계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이유는 이지함 사후 한참 후에나 토정비결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지함의 개인 문집에도 토정비결이 들어있지가 않고 동시대 다른 사람들의 글에도 토정이 토정비결을 썼다든가 하는 언급도 없기 때문이다.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토정 선생은 풍수를 잘 보기로 유명했고, 주역과 도참에 능한 서경덕에게 학문을 사사하였다는 사실도 있다. 실제 그는 이런저런 비기에 능했으므로 도참서의 저자로 소문이 퍼졌을 수 있다.

토정은 고려말 이름 높은 학자인 이색의 후손이며 대대로 명망 있는 학자와 관료 집안임으로 사대부가의 인물이 도참서를 썼다고 공공연히 밝히기는 어려웠을 거다. 토정이 썼든 아니든 간에 무엇보다 해가 바뀌는 때는 일반 가정에서는 토정비결로 온 가족의 일 년 신수를 살폈다. 옛 사람들은 태어난 시간까지 아는 경우가 드물어 태어난 연월일만 가지고 운수를 보는 토정비결이 훨씬 접근성이 좋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문 아래 한글로 설명이 달려있으니 한문을 모르는 일반 평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친근한 운수 예측서였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 길거리에 좌판을 깔고 편안한 가격에 토정비결을 바꾸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도 있었고, 작은 공책 크기의 토정비결 한 장을 받아서는 반 딱지 점듯이 고이 접어 들고 와서는 일 년 총 운세와 달마다 월간 운세를 펴보며 한달 한달 참고를 했던 기억도 정겹다. 인기 만화였던 ‘검정 고무신’에서도 주인공 기영이의 할아버지가 토정비결로 손자들의 운을 점치는 장면이 나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4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3650

스도쿠3650

스도쿠365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7	4	6	9	8	2	1
2	9	6	8	8	1	4	9	7
4	1	8	2	7	9	6	8	9
7	8	4	6	2	8	1	9	9
9	2	9	1	4	8	7	6	8
1	6	8	9	9	7	2	4	8
9	8	2	7	1	4	9	8	6
6	7	9	8	9	2	8	1	4
8	4	1	9	8	6	9	7	2

7	8	2	4	8	6	1	9	9
9	8	4	1	9	7	6	8	2
6	9	1	2	8	9	4	8	7
4	2	7	8	1	9	9	6	1
4	6	9	7	2	8	6	1	9
9	1	8	6	9	4	7	2	8
2	4	8	9	6	1	9	7	8
8	7	6	9	4	2	8	9	1
1	9	9	8	7	8	2	4	6